스위스가 제안하는 여름 체험.

눈으로 보는 자연이 아닌, 온몸을 던져 체험하는 스위스의 자연

'다시, 자연의 품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
새롭게 개발된 관광 상품 대신, 오랜 시간 제자리를 지켜온 자연과 문화 체험
전통호텔 주인장과 만나는 검은코 양떼
세계적인 아트 컨시에지가 소개하는 호텔의 현대 아트 컬렉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에서 체험하는 종유석 동굴
스위스 최초의 증기선 타고 선장의 안내대로 운항 체험

스위스정부관광청 CEO 인 유어그 슈미트(Jürg Schmid)는 한 기고문에서 진정한 슬로우 트래블러가 원하는 것은 작지만 완벽한 체험으로, 진짜 사람과 자연, 풍습과 지역적 특색을 마주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를 '배워 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7 년부터,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전통과 문화를 토박이 전문 가이드와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자연 친화적, 지역 친화적 프로그램들로, 겉핥기식 여행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실제로 무언가를 '배워볼 수 있는' 체험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여행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무언가 새롭게 개발된 관광 상품 대신, 오랜 시간 거기에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스위스의 자연과 문화 속으로 뛰어 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소개한다.

1. 체르마트(Zermatt)에서 양 세기
정녕 스위스다운 호텔 체험
'정녕 스위스다운 호텔'이란 무엇일까?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스위스다운 호텔들은 투숙객들에게 정통한 스위스 체험을 선사해 준다. 체르마트(Zermatt)의 마터호른(Matterhorn) 발치에 자리한 로만틱 호텔 율렌(Romantik Hotel Julen)은 그 좋은 예다. 발레(Valais) 주에서 서식하는 특별한 검은코 양이 있어 더욱 특별하다.

스위스다운 호텔에서는 살아 있는 전통을 체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특색이 살아 있는 건축 양식과 스위스가 품은 분위기가 어우러진 호텔은 스위스만큼이나 다채롭다. 타운 하우스나 시골 여관 혹은 스키장 옆에 자리한 산악 롯지까지, 호텔 소유주가 지향하는 매력을 발산하며 그 지역의 향토식과 함께 정통 스위스 휴가 체험을 선사한다.

특히 호텔 주인장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일 주일에 한 번씩 로만틱 호텔 율렌의 주인장, 파울 마르크 율렌(Paul-Marc Julen)은 투숙객들을 데리고 마터호른 북벽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보러 간다. 율렌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는 해발고도 2,400m 에 자리한 슈바르츠제(Schwarzsee) 옆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다.

그의 아버지가 1972 년 여덟 마리의 검은 코 양으로 시작한 이 집안의 가축은 이제 300 마리나 되는 암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검은 코 양떼를 소유하게 되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화이트 와인 한 잔과 함께 그는 함께한 이들에게 이 신비스런 산악 세계와 그의 검은 코 양에 대한 비밀스런 이야기들을 들려 준다.

호텔 주인장과 그의 양떼와 함께 특별한 순간을 즐길 수 있다.

“항생제는 절대 금물이죠.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시간은 절대 재촉하지 않죠. 밝고 널찍한 외양간이 있는 계곡에서, 그리고 여름이면 천상같은 이 곳에서 양들은 튼튼히 자라납니다. 이 녀석들보다 더 건강한 삶을 꿈꾸긴 힘들다니까요.” 라며 줄렌은 활짝 웃는다.

2. 취리히(Zürich)에서 체험하는 존재와 디자인
파크 하얏트 취리히(Park Hyatt Zurich)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아트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 카테고리에 속하는 파크 하얏트 취리히는 클래식 모던 아트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 르윗(Sol LeWitt), 세르주 플리아코프(Serge Poliakoff), 잉고 마우러(Ingo Maurer)를 포함한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 92 점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 애호가라면 반드시 한 번 투숙해 보아야할 정도로, 실망시키지 않을 시티 호텔이다.

품위있는 취향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스위스 디자인 & 라이프스타일 호텔에서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호텔들은 스위스 전역에 자리해 있는데, 그것이 스타일리쉬한 타운하우스이든, 산악 마을 중앙에 자리한 알프스 전통 양식이든, 과거 산업지역에 자리한 것이든 각자만의 독특하고 이례적인 건축미를 뽐내고 있다.

취리히에 있는 파크 하얏트는 그 미술품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클래식 모던 아트에 속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모아 왔는데, 이 작품들은 현대 미술의 큰 부분을 규정짓는 대립되는 스타일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호텔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기반한 아트 컨셉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고 있다.

“저는 아트 컨시어지(Concierge)기도 하죠. 투숙객들에게 취리히 최고의 갤러리에 대한 팁을 알려 주는 일 외에도 우리 호텔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안에 깃든 메시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라며 세계 컨시어지 협회에서 황금열쇠 배지, 레끌레도르(Les Clefs d’Or)를 수여한 알렉잔더 하그(Alexander Haag)는 활짝 웃는다.

문화와 쇼핑을 함께 즐기기 최적인 도시 취리히에서 호텔의 위치도 훌륭하다. 호텔 모퉁이에 갤러리가 자리해 있고, 구시가지와 쇼핑 거리도 가까워 편리하다. 쇼핑과 문화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이 이 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스타일리쉬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오닉스 바(ONYX Bar)는 꼭 한 번 찾아 보아야 하는데, 이 바의 오닉스 카운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바의 밝은 디자인은 화려한 효과를 발산하면서도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힙한 디제이가 노을에 제격인 음악을 선사하고, 기분 좋은 한 잔을 홀짝이는 사람들도 스타일리쉬하기 그지 없다.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기분 좋은 침구 속에 몸을 묻으면 얼굴에 잔잔하게 퍼지는 미소를 멈출 수 없다. 하루 종일 체험한 벅찬 감동에 젖어 맞이하는 취리히의 밤빛은 일찍 잠들기에는 너무 신비한 것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3. 루체른(Luzern)의 바위 사막에서 단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사악한 틈새와 바위 투성이 동굴 탐사
초록의 알프스에서 바위 투성이 사막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체험할 수 있다.
쉬라텐플루(Schrattenfluh)는 한 때 초록이 무성한 알프스였다. 그러나 지금은 쉬라텐칼크(Schrattenkalk) 석회암 투성이다. 전설에 따르자면 쉬라텐플루의 주민들이 너무 탐욕스러웠던 나머지 악마가 알프스를 파괴해 버렸다고 한다. 악마의 거대한 발톱으로 바위 위에 무성하던 초록 들판과 목초지를 뜯어내 버린 것이다.

'루체른의 와일드 웨스트(The Wild West of Luzern)'이라는 별명을 가진 엔틀레부흐(Entlebuch)에 퍼져 있는 기이한 형상의 사암 지대, 쉬라텐플루는 6km 길이로, 작은 조약돌과 조개 및 홍합 껍질을 비롯한 기타 해양 생물의 잔재로 뒤덮여 있다. 백악기 시대의 암석으로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다.

탐사 여정은 쉬라텐플루를 지나게 된다. 쉬라텐플루를 지나는 여정에 농부인 피우스 쉬니더(Pius Schnider)는 참가자들에게 이 흥미진진한 바위 사막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그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근교에 살고 있는 그는 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엔틀레부흐에 대해 자기 손바닥만큼이나 자세히 알고 있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습지 지형으로 규정된 특성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과 경쾌한 구릉지대가 펼쳐진 엔틀레부흐는 스위스 국립 공원에 이어 스위스에서 지정된 두 번째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광범위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자연과 문화 지역으로, 이 곳에 서식하는 풍성한 자연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보호하고 있다. 엔틀레부흐는 스위스 최대의 습지대로, 이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은 국제적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싹한 동굴로 내려가는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심연의 바위 속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헬멧을 쓰고 조명등을 확인한 뒤 시작된다. 알프 질뱅엔(Alp Silwängen) 아래로 이어지는 좁다란 통로를 향해 8 미터 수직 하강 코스를 내려가야 한다.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통로다. 바닥에 내리면 120m 를 더 걸어가야 한다. 첫 몇 미터는 무척 미끄럽고, 그리고는 깜짝 놀랄만한 풍경이 나타난다. 헬멧의 조명등이 비추는 얇은 종유석은 곧 천사의 머리카락으로, 달빛을 닮은 우윳빛 벽은 버터같은 부드러움으로 변하며 매 코너마다 기이한 형상을 한 바위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이들을 노려본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기이한 종유석 동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면 새파란 하늘이 사람들을 반겨준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이 전설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면서 바라보는 주변의 웅장한 풍경은 이 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4. 레만(Léman) 호에서 증기를 뿜으며
역사적인 증기선 타고 떠나는 레만호 여정
레만호에서 선장과의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유람선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선장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도 레만호의 역사적인 증기선을 타고 말이다. 선장과 나란히 서서 이 웅장한 유람선이 감동스런 풍경 속으로 나아가는 항해 모험을 즐길 수 있다. 선장용 브릿지에서도, 유람선의 비밀스런 공간들에서도 모험은 계속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드넓은 물결의 내음을 사랑한다는 최근 은퇴한 피에르(Pierre)는 쉿쉿대는 소리와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 기름 냄새를 좋아한다. 한 번쯤 레만호의 유람선 선장과 나란히 서서 이 멋진 증기선을 지휘해 보는 것이 꿈이었던 그다. 오늘, 1910 년부터 운항해온 라 스위스(La Suisse)가 그에게 운명을 맡겼다.

피에르와 그의 부인 이본느(Yvonne)는 로잔(Lausanne)-우쉬(Ouchy)의 선착장에서 긴장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곧 선장이 직접 따뜻하게 맞아준다. 특별한 영광같은 기분에 젖는 순간이다. 다른 승객들은 부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다 본다. 곧 선원이 될 둘은 레만호의 증기선 협회의 멤버인 에블린(Evelyne)의 안내로 세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에블린은 이런 역사적인 교통편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벨 에포끄(Belle Epoque) 양식의 증기선은 반대편 호반에 자리한 생장골프(St-Gingolph)를 향한다. 피에르와 선장은 보(Vaud) 주에 펼쳐진 알프스 봉우리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엔진실로 들어가는 좁은 금속 사다리를 내려가기 전에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즐기기 적당한 시간이다.

엔지니어와 함께 증기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한 아래쪽으로 향한다. 아마도 따뜻할 것이다. 밸브에서는 쉿쉿 소리와 뿜어내는 소리가 요란하다. 베어링에서는 삐걱대는 소리가 난다. 언제 패들 휠이 반대편으로 돌기 시작할까? 창문 하나 없는 이 아래측에서 어디쯤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들으면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 곳이 바로 증기가 생성되고 기계와 만나는 곳이다. 엔지니어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듯 하다. 갑자기 종 소리가 울린다. 선장이다. “속도를 반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어지는 명령이 들린다. “천천히”, “정지”, “반대로”. 르 부베레(Le Bouveret)에 도착한 모양이다. 구동축이 정지한다.

1823 년 스위스 최초의 증기선으로 레만호의 푸른 물 위를 운항하기 시작한 라 스위스호다. 현재는 총 8 척의 증기선이 레만호를 운항하고 있다.

피에르와 이본느는 다시 선장의 브릿지로 돌아온다. 이 둘이 운항 명령을 내려볼 차례가 되었다. 엔진실로 보내는 명령은 엔진 명령 전보로 발송되는데, 이 마법같은 커뮤니케이션 장비가 바로 브릿지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이 최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장관에 감동받고 있는 두 사람 뒤에 노련한 선장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거대한 증기선을 조심스럽게 조타해 보는 두 사람은 다음 선착장, 시옹(Chillon) 성을 향하고 있다.

사실 노선 중에는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가 많다. 다음은 저 멀리 프레디 머큐리(Freddy Mercury)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 몽트뢰(Montreux)고, 파머스 마켓으로 분주한 브베이-마르쉐(Vevey-Marché)가 이어진다. 레만호에서 몇 시간이나 보내도 좋을만큼 아름다운 항해다. 2007 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라보(Lavaux) 포도원의 와인산지 마을인 생사포랭(Saint-Saphorin), 에뻬스(Epesses), 데잘레이(Dézaley)도 지난다. 이쪽 호숫가를 따라 이어지는 진주같은 풍경이다. 최고의 품질을 갖춘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하지만 근무 중에는 음주는 금물이다. 로잔-우쉬에 있는 작은 항구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충분히 즐길 시간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